

-(-으)냐고 하다

~냐고 묻다 — 질문 전달하기

네 가지 간접 화법 형태 중 마지막입니다. 반말 의문형 어미 -(느)냐를 바탕으로 만들며, 보통 하다보다 묻다나 물어보다와 함께 씁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동사	-냐고 (원칙적으로 -느냐고)	가다 → 가냐고 물었어요
형용사	-(-으)냐고	좋다 → 좋냐고 물었어요
이다	-(-이)냐고	학생이냐고 물었어요
과거	-았/었냐고	갔냐고 물었어요
끝의 동사	묻다, 물어보다	어디 가냐고 물어봤어요
구어 줄임형	-내요	가내요

■ 언제 쓰나요

원칙적으로 어미는 품사에 따라 나뉩니다. 동사는 -느냐고, 형용사는 -(으)냐고, 이다는 -(이)냐고를 씁니다. 하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구분이 거의 사라져, 어떤 어간 뒤에서든 -냐고를 쓰는 것을 듣고 읽게 됩니다: 가냐고, 좋냐고, 학생이냐고.

다른 간접 화법 형태와 마찬가지로 시제는 안에 들어갑니다: 갔냐고 물었어요.

전달하는 행위가 질문이므로 끝의 동사는 하다보다 묻다나 물어보다를 자주 씁니다: 어디 가냐고 물어봤어요.

의문사는 제자리에 그대로 둡니다. 한국어는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어순을 바꾸지 않으므로, 어디 가?는 어디를 그대로 둔 채 어디 가냐고가 됩니다.

구어 줄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: -내요.

■ 예문

- 1 친구가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.
- 2 선생님이 숙제를 했냐고 물어보셨어요.
- 3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어요.
- 4 음식이 맛있냐고 물어봤어요.
- 5 언제 만들 거냐고 했어요.
- 6 내일 시간 있내요.

■ 비교

-(-느)냐고 하다
평서문과 의문문의 차이입니다. 네 가지 간접 화법 형태는 이 자리만 다르므로 한데 묶어 익히면 효율적입니다.
간다고 했어요. (간다고 말했다) / 가냐고 했어요. (가냐고 물었다)

-는지 묻다
간접 의문문의 또 다른 방법으로, 글에서 흔히 씁니다: 오는지 물었어요. 둘 다 맞지만 -냐고가 더 대화체입니다.
가냐고 물었어요. / 가는지 물었어요.

네 가지 줄임형
-대요, -래요, -재요, -내요. 말할 때 이 네 가지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일상 대화를 훨씬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.
간대요 / 가래요 / 가재요 / 가내요

■ 주의

- ✗ 친구가 어디 가요고 물었어요.
- 친구가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.
간접 화법은 반말 의문형을 바탕으로 하므로, 먼저 존댓말 -아요를 떼어 냅니다.
- ✗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냐고 물었어요.
-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어요.
이다는 바로 -(이)냐고가 됩니다. 중간에 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.
- ✗ 선생님이 숙제를 하냐고 물으셨어요. — '했냐고'라는 뜻이라면 (✗)
- 선생님이 숙제를 했냐고 물으셨어요.
시제는 어미 안에 들어갑니다. 하냐고는 현재를, 했냐고는 완료된 동작을 묻습니다.